

iPhone16 출시 영향으로 글로벌 판매량 1억대 초과

Monthly 휴대폰/부품 [24년 9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 | 2024.10.30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글로벌 스마트폰 9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전월대비 4% 증가한 1억 44만대 기록

- iPhone16의 출시 영향으로 9개월만에 글로벌 판매량 1억대를 초과
- 지역별로는 중국과 인도는 각각 12%, 3% 감소, 유럽과 미국은 9%, 8% 증가했음
-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중국 로컬 OEM들의 판매 부진이 주요인
- 인도는 수요 부진 지속되며 7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중
- 유럽과 미국은 Apple의 iPhone16 출시 영향과 삼성전자의 A 시리즈 판매 호조로 성장세 기록

중국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3% 감소, 전월대비 12% 감소한 2,035만대 기록

- Apple과 더불어 로컬 OEM들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전월대비 감소세 전환
- 특히 Honor의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주도
- Apple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 감소했음
- 점유율은 Vivo가 18%로 1위, 화웨이가 17.6%로 2위를 기록. Apple은 iPhone16 출시를 통해 점유율 3위로 올라섬
- 9월 출시된 화웨이의 트리플더블폰 'Mate XT'의 판매량은 2만대를 기록

미국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8% 증가, 전월대비 33% 증가한 1,078만대 기록

- Apple의 iPhone16 출시와 삼성전자의 A15 판매량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전월대비 증가세 시현
- Apple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6%, 전월대비 76% 증가
- 삼성전자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전월대비 6% 감소
- 모토로라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했는데, 이는 RAZR 2024 시리즈 판매량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인도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전월대비 17% 증가한 1,465만대 기록

- 인도 판매량은 축제 시즌 효과로 전월대비 증가했으나, 예년보다 약한 소비자 지출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시현
- 수요 약세 지속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중
- 10월 판매량은 축제 영향으로 전월대비 증가세 유지하겠으나,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점유율은 Vivo가 T3 라이트, T3x, Y28 등 보급형 모델 판매와 V40 등 프리미엄 모델 호조로 1위(18%)를 견고하게 유지중
- 2위는 Xiaomi(17.6%)로 Redmi 13 시리즈를 기반으로 2위를 지속중
- 3위는 삼성전자(16.7%)이며, 600 달러 미만 세그먼트 판매 호조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지난달대비 1.8%p 확대됨

유럽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9% 증가, 전월대비 6% 증가한 1,320만대 기록

- iPhone16의 출시와 더불어 삼성전자, 샤오미의 중저가 세그먼트 판매호조로 전년동월/전월대비 증가세 시현
- Apple의 판매량은 iPhone16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 증가
- 삼성전자 판매량은 A시리즈 판매 호조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5% 증가
- 샤오미는 14T 시리즈 출시로 전년동월대비 3% 증가
- 이외에 노키아를 제외한 모든 OEM 판매량이 증가했음

Apple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 증가, 전월대비 47% 증가해 1,911만대 기록

- iPhone 16의 출시가 전작대비 이틀 빨라지면서 전년동월/전월대비 증가세 시현
- 다만 출시 이후 일평균 판매량은 전작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
- 10월 말부터 Apple Intelligence가 도입된 만큼 향후 판매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16 시리즈의 출시 첫 달 판매량은 867만대로 15 시리즈의 동기간 판매량을 7% 상회. 16 시리즈의 출시가 전작대비 이틀 빨랐던 영향이 있음
- Pro Max와 Pro의 합산 비중은 68%이고, Pro Max 비중은 39%로 Pro보다 높게 유지

삼성전자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3% 감소, 전월대비 2% 증가해 1,891만대 기록

- 갤럭시 S24 시리즈 9개월 누적 판매량은 2,892만대(울트라 1,346만대, 플러스 572만대, 기본 973만대)로 S23 시리즈의 2,506만대(울트라 1,163만대, 플러스 452만대, 기본 891만대)를 15% 상회
- Z6 시리즈 2개월 누적 판매량은 358만대(플립 214만대, 폴드 144만대)로 Z5 시리즈의 311만대(플립 196만대, 폴드 115만대)를 15% 상회
- Z6 시리즈의 출시가 Z5 시리즈 대비 2주가량 빨랐던 것이 판매량 상회의 주요인. 다만 일평균 판매량도 전작대비 소폭 상회한 것으로 파악

iPhone16 출시 영향으로 글로벌 판매량 1억대 초과. 중국은 로컬 업체 판매 부진으로 역성장 전환

- iPhone16 출시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판매량 증가하며, 글로벌 판매량 1억대를 초과
- 중국은 iPhone 16과 Mate XT 출시에도 로컬 OEM들의 판매 부진으로 역성장 전환
- 인도는 수요 부진 지속되며, 7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중
- 10월 체크 포인트는 iPhone16 시리즈 및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중국 및 인도 판매량 추이

데이터 요약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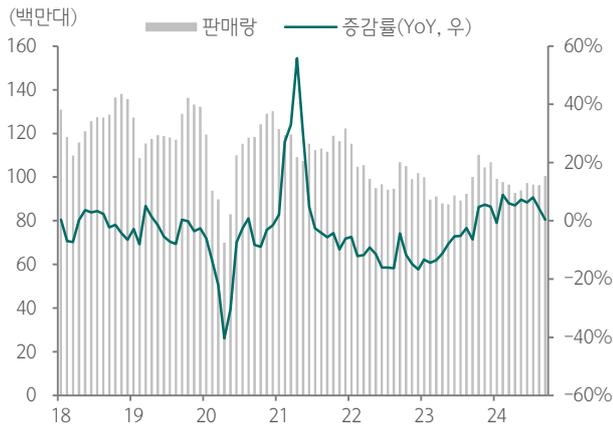
글로벌 판매량 1억 44만대 • MoM 4%, YoY +0.4%	미국 판매량	• MoM +33%, YoY -8%
	중국 판매량	• MoM -12%, YoY -3%
	인도 판매량	• MoM +17%, YoY -12%
	유럽 판매량	• MoM +6%, YoY +9%
삼성 1,891만대 (MS 19%) • MoM +2%, YoY -3%	미국	• MS 21% (전월 29%)
	중국	• MS 0.6% (전월 0.6%)
	인도	• MS 17% (전월 15%)
	유럽	• MS 32% (전월 36%)
Apple 1,911만대 (MS 19%) • MoM +47%, YoY +2%	미국	• MS 60% (전월 45%)
	중국	• MS 16% (전월 12%)
	인도	• MS 7% (전월 4%)
	유럽	• MS 25% (전월 20%)
Xiaomi 1,340만대 (MS 14%) • MoM -2%, YoY +1%	중국	• MS 15% (전월 16%)
	인도	• MS 18% (전월 17%)
	유럽	• MS 20% (전월 19%)

글로벌 판매량 1억대 초과

- iPhone16 출시로 유럽과 미국은 전년동월대비 성장세를 기록
- 중국은 로컬 업체 판매 부진 영향으로 YoY 감소세로 전환
- 인도는 수요 부진 영향으로 YoY 감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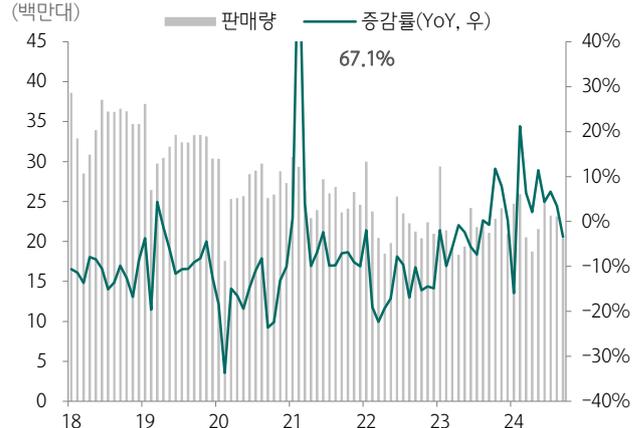
- 삼성전자, Z6 시리즈의 출시 2달 판매량은 전작대비 15% 상회. 전작대비 출시일이 2주가량 빨랐으나, 일평균 판매량도 소폭 상회한 것으로 파악
- Apple의 iPhone16 첫 달 판매량은 전작대비 7% 상회. 전작대비 출시일 이틀 빨랐으며, 일평균 판매량은 전작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
- Xiaomi, Huawei 등 중국 업체들 전년동월대비 판매량 고성장 지속중

도표 1.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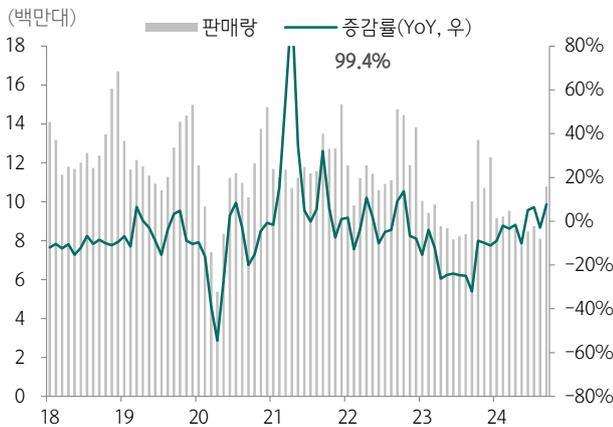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2.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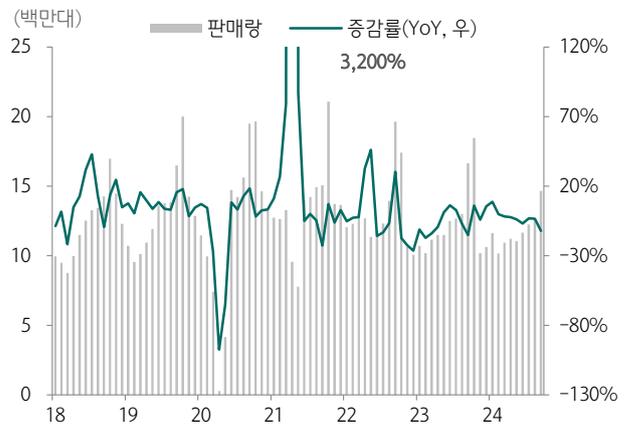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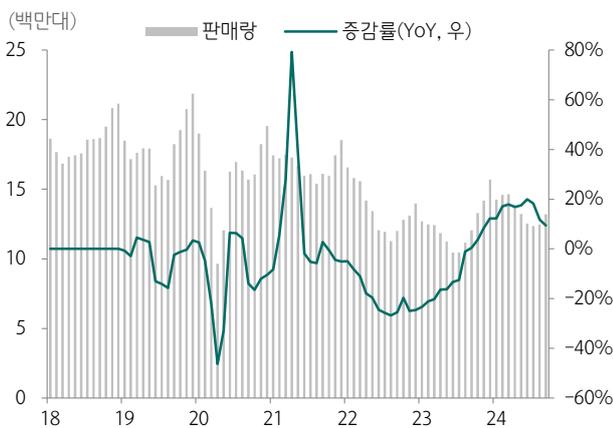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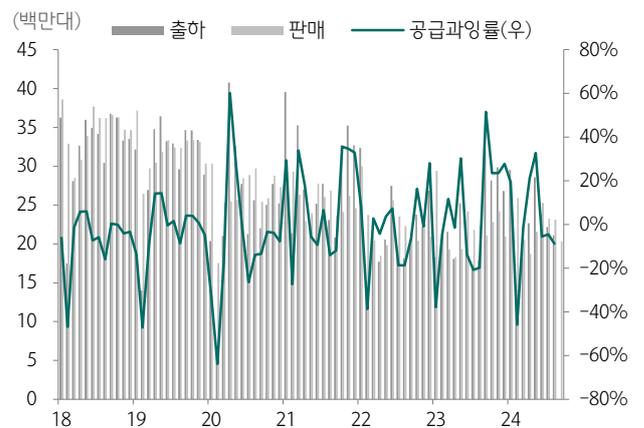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5. 유럽 스마트폰 판매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도표 6.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및 판매량 비교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록호)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0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록호)는 2024년 10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18%	4.39%	0.44%	100%

* 기준일: 2024년 10월 27일